

전장(戰場)이 바뀌었다

이정일 교수

(동국대 영문과)



길을 잃다

한국 사회를 묘사한다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라고 표현하는 이도 있다. 우리 결엔 미움과 대립이 여전하다. 고민 끝에 얻은 힘이 강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이타적인 삶을 좋아

하지 않는다. 신앙인조차도 맛집, 스포츠와 취미생활엔 열중하지만 신앙은 고사하고 윤리적인 삶에도 시큰둥하다. 소설은 우리가 이런 모순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짚어낸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를 펼치면, 독자의 시선을 붙잡는 문장이 있다. 작가는 매달 연재했던 소설 도입부를 이

렇게 시작한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디킨스는 19세기를 살았다. 그런데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겪는 혼란을 예견한 듯하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숲에서 길을 잃은 단테처럼 말이다. 『신곡』을 시작하며 단테는 이렇게 썼다. “인생이 절반쯤 지났을 때 나는 길을 잃었고, 어두운 숲속에 들어선 후에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테는 죄의 숲에 빠진 자신을 깨닫고 두려움에 떠난다. 우리 삶엔 내재적인 모순이 있다.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하지 않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우리를 읽지 못한다. 내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안보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안보 딜레마

우리는 매일 TV 화면을 통해 각자의 불행을 지켜본다. 하지만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사이엔 큰 간극이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일어난 비극에도 총기규제는 요원하다. 이해가 대립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누군가는 유익을 얻는다. 한반도의 위기

는 미국 군수산업에 호황을 가져온다. 이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총리 요시다 시게루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전쟁을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고 표현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도 비슷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 베트남전이다. 우리에게 베트남전쟁은 ‘신이 한국에 내린 선물’과 같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 중에 「굿모닝 베트남」이 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이공에서 방송을 하면서 겪는 일상을 코믹하게 그린 반전 영화이다. 이 영화에선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왓 어 윈더풀 월드」(What a wonderful world)가 주제곡으로 나온다. 노래는 반전이란 주제를 절묘하게 표현한다. 국제 정치학에서 다루는 용어 중 ‘안보 딜레마’가 있다. 한 국가가 안보에서 위협을 느껴 군비를 증강하면 다른 국가에서 맞대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더 높은 수위의 위협이 생겨난다. 즉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조치가 국가 안보에 더 큰 위협을 가져온다. 사드이다. 이것이 안보 딜레마이다.

안보는 국가 대 국가란 모습으로도 다가오지만 비안보라는 모습으로도 다가온다. 국력이 약한 국가는 외부의 침략에 취약하다.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란 전란을 겪은 것은 강대한 외부의 적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먼저 내부의 적에게 무너진 결과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북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한 국가의 안보는 내부의 안보가 지켜질 때만 보장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안보란 안전하게 지켜서 보호를 받

는다는 뜻이다.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외부 적으로의 침범밖에 없을까?

안보란 국민을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인데, 여기엔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리카, 중남미 나라들을 보면 그것을 절감한다. 부패가 없는 나라는 없겠지만 이들 나라에선 부패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중남미 국가들의 살인율이 1, 2위를 다툰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세인트 키츠 네비스, 베네수엘라의 살인율은 너무 높다. 엘살바도르는 나라 이름이 구세주인데, 살인율이 한국의 60배가 넘는다. 한국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치안이 좋긴 하지만, OECD 국가 중 살인율이 6위 강간 범죄율이 13위다.

안보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란 모습으로도 다가오지만, 문화, 테러, 해킹, 사이버전쟁이나 지적전쟁의 모습으로도 다가온다. 일상에서 기독교를 타깃으로 삼는 위협 중 하나는 지적 전쟁이다. 교회 밖을 벗어나면 세상은 선과 악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회색지대이다. 이제 세상의 것들이 점점 교회의 문턱을 넘어 우리의 생각 속으로까지 밀려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마주친 문제들은 낙태와 동성애, 인권 같은 문제부터 신무신론이나 복제인간, 본문비평 같은 전문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싸움에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개입함에 따라 싸움은 점점 지적전쟁의 모습을 띄어가고 있다.

지적전쟁의 모습을 띄어가는 진리에 대한 공격

크리스천들 가운데 들뢰즈, 라깡, 푸코, 지젝, 데리다, 피터 싱어 같은 이름을 들은 분은 드물 것이

다. 하지만 인문학 분야에 들어서면 이 이름들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리처드 도킨스, 크리스토프 히친스나 샘 해리스는 성경의 예수가 픽션임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소재를 제공한다. 이들은 무신론자들의 슈퍼스타로서 기존의 논리에 식상한 독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리를 척척 만들어낸다. 바트 어떤 교수(노스캐롤라이나대 종교학과)의 스토리는 새로운 논리를 필요로 했던 무신론자들에게 잘 먹혀들었다. 신약학 분야와 본문비평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그의 말에 힘을 실어준다.

이제 싸움의 양상은 점점 굴곡지고 거칠어지고 있다. 옥스퍼드대 도킨스가 『신이란 망상』을 내놓고 으름장을 놓자, 같은 대학 출신으로 생물리학 박사이자 신학교수인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는 『도킨스 망상』, 동방정교회 신학자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David Bentley Hart)는 『무신론자의 망상』으로 맞대응한다.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자 31억 개의 인간 유전자 지도를 해독한 게놈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가 『신의 언어』(The Language of God)로 맞서고,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자 출신인 오웬 진저리치(Owen Gingerich)가 『신의 우주』로 맞대응을 한다. 싸움의 양상이 격렬한 진리를 둘러싼 지적 전쟁터에선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리처드 도킨스는 옥스퍼드대 찰스 시모니 석좌 교수란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이 타이틀을 준 찰스 시모니는 미국의 억만장자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와 엑셀을 개발해 부와 명성을 동시

에 얻었다. 그는 추정재산이 1조원쯤 되는 재산가이고, 6천만 달러를 내고 국제우주정거장까지 두 번이나 다녀왔다. 시모니는 무신론자로서 진화생물학자인 도킨스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모니는 찰스 시모니 석좌교수란 타이틀을 만들어 도킨스에게 쥐어주면서 그를 ‘다윈의 로트와일러’라고 불렀다. 로트와일러는 힘이 세고 똑똑한 경찰견이다. 도킨스는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이렇게 내뱉고 있다.

모든 픽션 중 가장 불쾌한 캐릭터이다. 질투가 많고 교만하며 ... 하찮고 ... 불의하고, 용서라곤 보통 모르면서 뒤에서 조종만 하는 자이며 ... 여성 혐오증이 있고, 동성애를 혐오하고 인종차별주의자이며, 유아를 죽이고, 집단학살을 하는 ...

지식의 최종소비처를 두고 벌이는 싸움

안보를 다룬 명언들이 여럿 있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라는 조지 워싱턴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맥그래스가 도킨스를 상대한 논쟁은 다르게 읽힌다. 둘의 논쟁은 땅뺏기 싸움이다. 그런데 그 땅은 어딜까? 도킨스, 히친스, 바트 어먼, 댄 브라운은 고수들이다. 이들이 노리는 대상은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불투명한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회색지대에서 삶에 대한 열정이 특출하고 또 색다르고 낯선 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신무신론자들에게 매력적인 포섭의 대상이 된다.

한번 생산된 지식은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생산된 지식은 본능적으로 시장을 찾아 나선다. 2차 대전이 후발주자와 선발주자가

제한된 시장을 두고 벌인 전쟁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신무신론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은 어디 일까? 그들이 생산해내는 지식의 최종 소비처는 어디일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다. 한번 생산된 지식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흡수되고 소화된 뒤에야 사라진다. 이러한 지식의 섭취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가가 건강의 척도가 되듯이, 어떤 지식을 섭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켜진 경고 등처럼 보인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국가가 영토를 지키듯,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이다. 북한의 논리에서 보듯,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고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어도 그런 사실을 옳다고 우기거나 왜곡하여 자신들이 옳다는 주장을 한다. 틀린 것을 알아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은 지금도 아담과 이브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며 살기 때문이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의 씨를 뿌릴 기회를 찾아 발품을 팔고 다닌다. 진리는 선물이다. 진리는 발견되지만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참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옵션이 되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이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하지만 그 답을 기다릴 정도로 진리는 그에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CNN 라이브 토크쇼 「래리킹 라이

브』에 세계적인 록 스타 보노(Bono)가 출현한 적이 있다. 보노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에 진행자 래리 킹이 호기심어린 질문을 던졌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이다. 이 질문에 보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설명하는 방식은 달라도 결국은 응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래리 킹처럼 많은 이는 그저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생겨나고 있지만, 증오로 눈이 먼 사람은 여전히 많다. 알제리 작가 야스미나 카드라(Yasmina Khadra)는 『테러』란 소설에서 작중인물을 빌어 묻는다. “무슨 이유로 한쪽의 행복을 위해 다른 한쪽의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합니까?” 하지만 증오를 품은 사람에겐 시선이나 말 한 마디도 상처가 된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가혹한 시련이지만, 미움이 가득한 사람에겐 죽음이 목적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된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시스템을 바꾸거나 건물을 바꾸거나 플랜을 짰 것이 아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그리스

도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었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진실한 회개가 먼저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나부터 변화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첫 걸음이었다.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님은 종교라는 인프라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을 쓰셨다. 안보는 종교개혁과 궤를 같이 한다. 안보는 첨단 무기가 아니라 깨어 있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다.



글 |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콧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